

자율주행차가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와 테크놀로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 배치할 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자율주행차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량을 적절히 분산시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것' 이



라고 말한다. 또 전기차 기술과 결합해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많아지면 안전, 쾌적한 도로, 환경 친화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될까?

■ 미국인 78% "자율차 타기 걱정돼"

'서울신문'에 따르면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며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 인식 ●안전성 ●소유권 ●행동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자동차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교통 유도피하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8%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것을 걱정하고 41%는 기존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같은 도로를 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48%는 자율주행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런 인식은 안전성, 소유권, 행동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 운전 안 하니 편해... 이용 더 늘 수도

실제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은 현재 나와 있는 일반차들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안전하기 전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

다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자율주행차를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타고 있는 차를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또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면 원하는 곳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자율주행차의 이용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 재미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 직접 차를 운전하도록 했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도록 한 것이다. 실험 결과 운전기사가 차를 몰았을 때 자동차 이용 횟수나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운행 시간이나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사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들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는 장밋빛 예측과 비관적 전망이 난무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밝은 부분만을 보고 치달는 경우가 많다. 비관적 전망도 귀 기울여 듣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술을 만드는 것이 기술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대차, 피아트크라이슬러 인수설 제기

한국의 현대차와 미국 자동차 '빅3' 중 하나인 피아트크라이슬러 합병설이 제기됐다.



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트로이 프립레스는 이날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퇴임하기 전에 현대차가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인수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대차의 피아트크라이슬러 인수와 관련해 현대차 미국법인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오토 트레이더'의 애널리스트 미셸 크랩스는 두 업체의 합병이 흥미로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와 기아차가 승용차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강세인 반면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트럭에서 강해 두 업체가 상호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랩스는 문화적인 충돌 등으로 기업간 합병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법은 없지만 닛산과 르노의 제휴도 처음에는 현명하지 못해 보였어도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마르치오네 CEO는 지난해 말에 현대차와 수소 연료 전지 제휴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으며 그동안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합병이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현대차의 피아트크라이슬러 인수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영문 온라인매체 '아시아타임즈'는 지난달 29일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인수를 제안하기에 앞서 피아트크라이슬러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올해 여름과 피아트크라이슬러 주주총회가 열리는 내년 5월 사이에 인수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2019년 5월 공식적으로 물러나는 마르치오네 최고경영자가 끊임없이 현대차그룹의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려 노력한 점도 들었다. 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마르치오네 최고경영자는 세계 최대 완성차회사가 될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을 자국 해왔고 마치 중국 장청자동차가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인수할 것처럼 허수아비로 내세우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마르치오네 회장은 미국 당국이 중국 회사인 장청자동차의 지프 인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장청자동차의 인수 움직임을 추동해 현대차그룹의 피아트크라이슬러 인수를 놓고 미국 당국의 반감을 낮추려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폭스바겐과 GM도 피아트크라이슬러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합병 시너지를 감안하면 현대차그룹이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라고 이 매체는 바라봤다.

www.myevery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